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고병원성AI, 일본 재발과 유럽확산 조짐

강력한 방역대책 수립과 실천으로 시전 예상

최근 전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추이가 심상치 않다. 최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러시아 남부의 평원을 거쳐 중동, 지중해까지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동남아지역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지속적인 발병소식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일본 사이타마현(埼玉)의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로 결코 안전지대를 보장하기 힘들게 되었다.

중국을 다녀온 한 양계인에 의하면 이미 중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확산 양상을 볼 때 철새들이 이동하는 금년 말을 기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까지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왔다.

일본은 지난 6월에도 이바라기현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N2)가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발하자 일본정부를 비롯한 양계인 및 관련단체에서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정부는 발생농장에서 10만수에 가까운 닭을 살처분시키고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km 내의 계란과 닭의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말부터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54명의 목숨을 앗아간 H5N1보다 덜 치명적인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지만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면서 질병청정국을 자랑해오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두려움은 유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베리아의 우랄 산맥을 넘어선 조류인플루엔자가 서쪽(유럽지역)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철새들이 러시아 남부 지역 외에도 기울에 인근 국가들(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지중해 연안국들)을 통과하므로 이 국가들로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4월 20일 경기도 양주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사실이 없지만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PAI)가 전국에 만연해 있고, 주변국(중

국, 일본 등)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 질병의 발생 이후 고가의 양계산물 가격이 형성된 관계로 자칫 과거의 어려웠던 순간을 잊어버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국 행사로 뿌리내리는 99데이(99-Day)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 마련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99데이 행사가 오는 9월 9일(금) 전국적인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금년은 닭의 해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1월 1일 서울 남산에서 새해 맞이 닭날리기 행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발생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악몽을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는 재기를 다짐하기도 했다.

구구데이(99-Day) 행사는 지난 2003년부터 정례행사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로 범국민적인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구구데이는 예로부터 닭을 불러 모을 때 ‘구구’하고 부르던 것에 착안하여 매년 9월 9일에 ‘모두 불러 모아 닭고기와 계란을 먹는 날’로 정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축협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정부는 물론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 및 관련업계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닭의 날과 관련하여 금년 4월에 실시되었던 화이트데이(白日)는 99세인 백수(白壽)의 의미를 강조하여 노인대상 ‘닭고기 효잔치’로 추진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99데이 행사는 주부·청소년 및 어린이 대상 홍보 이벤트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행사는 닭고기·계란 시식회는 물론, 1999년 9월 9일 출생자 대상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있었던 99데이 행사는 서울 명동 밀레오레,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행사가 치러지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99닭고기·계란요리전시회, ‘계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등 소비확대를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속출하면서 행사의 재미를 더해주었다.

닭의 해를 맞이하여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은 물론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속속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양계산물 소비증진에 한몫을 해주고 있다.

99데이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창출되어 양계인들의 소득에 한껏 기여했으면 한다.

양계인들도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성 높은 양계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채란업 불황극복을 위한 노력 실용계 병아리 감축결의 등 적극 대응기

계란의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채란업 경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휴가철이 끝나고 예년보다 추석이 일찍 찾아오는 시점에서 계란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격상승으로 인해 DC폭은 좀처럼 좁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유통의 혼란만을 가져온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사상 최고의 닭사육수수(1억4천934만수)가 말해주듯이 장기간의 호황에 따른 불황의 수순을 밟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양계업의 현실이다. 따라서 채란업계에서는 불황에 대비한 대책으로 수당 5원씩의 자조금을 거출하는가 하면, 김포채란지부에서는 자발적으로 15만개의 계란을 기부해 북한계란보내기에 동참(결국 국내 불우이웃돕기에 전달됨)하는 열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종계업자들이 동참하면서 차후 불황극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의 산란 종계·부화장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매월 200만수 이하로 산란실용계를 생산하기로 결의하고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계란으로 수급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용계 병아리 발생을 제한하여 2006년도의 채란업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채란인들의 감축제안을 산란종계업계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종계업계에서는 이미 금년도의 종계쿼터물량을 46만8천수로 유지한다는데 합의하였지만 불황이 일찍 찾아오면서 2004년도 종계쿼터량을 기준으로 매월 200만수 이내로 감축물량을 배정하여 자율적으로 물량조절을 해나가자는데 6개 부화장에서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각 부화장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산란용 실용계 입란 및 판매수수를 보고서 양식에 의거 본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본회에서는 수시로 각 부화장을 방문하여 확인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란실용계 감축은 2006년 초부터 병아리 생산감축 효과를 가져와 채란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병아리 생산감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계업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폐기 또는 식란으로 처리되어야 할 종란이 타 부화장으로 입란되어 병아리로 판매되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실용계 농장에서도 환우를 자제하고, 노계도태를 계획적으로 해나갈 때 채란업의 불황은 쉽게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차후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계의 DB구축 사업에 이어 채란계 DB 사업도 착수해 나갈 뜻을 밝히고 있어 산란계 안정화에 더욱 기대를 걸게하고 있다. **양계**